

오병호

반갑다 자전거야!
미세먼지 잡으러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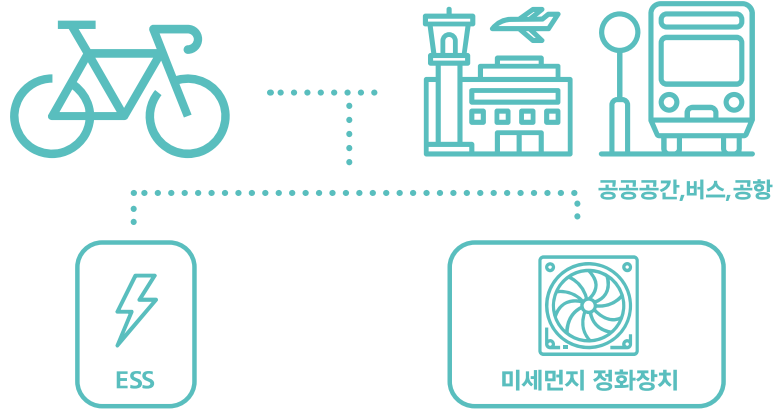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로 불릴만큼 피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파짜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여기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입니다. 또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유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플랫폼

1. 전기자전거
2. 태양광
3. 전력 발생
4. ESS 저장
5. 미세먼지 정화
6. 에코마일리지
7. 지역화폐교환
8. 지역경제활성
9. 국민건강증진
10. 전자광고
11. 수익배분
12. 국부창출



100주년을 생각하다 보니 자전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만끽할 수 있는 에너지는 공짜로 얻어 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날 목숨 걸고 얻어낸 자유의 공기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오염되어 갑니다.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나라를 우리 후손대에서는 최소한 미세먼지로 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작은 걸음으로 공항이나 버스 정류장 혹은 지하철 등에 배치하여 기다리는 시간만큼 발전을 해서 약간의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가발전 자전거를 통해 얻은 전력으로 공항이나 항구, 학교, 버스터미널 등의 공공공간에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시민들에게는 건강을 정부는 에너지효율화를 극대화하면서 자가발전 자전거를 통해 얻은 전력을 에코포인트 마일리지화로 하여 해당 사업장 혹은 공공기관에서 사회 공헌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공공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플랫폼

1. 자가발전 자전거
2. 전력생산
3. 미세먼지 정화
4. 사회공헌 포인트
5. 국민건강 증진
6. 대국민 에코 서비스



간략 설명 : 자전거로 전력생산 후 미세먼지 필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잡는 방식입니다.

전력생산을 돕고 난 후 발생하는 에코 포인트는 해당 사업소에서 사회공헌을 위해 기부하게 될 것입니다.

P.S 헬스장이나 / 관공서 / 학교 교실과 같이 미세먼지에 잡혀 있는 실내에 설치를 하는 방안과 어르신들 가정에 이 자전거 세트를 가지고 가서 직접 돌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사회공헌도 생각중에 있습니다.